



손학규 대표 연 이틀 '호남 구애' 당 지지층 복원? 경선 계파 지원?

광주·전북 총선 출마자 만찬 간담회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남 광주에 이어 1일 전북을 찾는 등 이틀 연속 민주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호남 방문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저녁 전북지역 18대 총선 출마자와 만찬 및 간담회를 갖고 당선자들의 원내 입성을 축하하고, 낙선자들을 위로한 데 이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날 광주·전남지역 출마자와 만찬을 가진 데 이어 당내 호남 인사들과 연일 '정치적 스킨십'을 넓혀가는 셈.

손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호남이 총선 때 공천부터 시작해 '물갈이' 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호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지층의 힘으로 전국정당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7·6 전대에 관해 "50년 전통 민주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토대가 되는 자리이니만큼 많은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가 연이틀 '남행열차'에 몸을 실은 것은 전통적 지지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우선 호남에서 전체 31개 의석 가운데 무소속 6석을 뺀 25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호남 지역 투표율이 예전보다 저조했던 데다 수도권 내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응집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 대표로서 전통적 지지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해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골치 아픈 시선도 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골치 아픈 시선도 있다.

손 대표의 호남 방문은 장기적 정치적 입지 구축과 무관치 않다는 것

이다. 전당대회 불참을 공식 선언, 차기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기로 했지만 차기를 모색해야 할 손 대표로서는 수도권 출신이면서 취약한 당내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핵심인 '호남 민심' 잡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원내대표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등을 앞두고 손 대표가 사실상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민감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즉, 호남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당내 경선 출마를 선인한 친 손학규 인사들의 측면 지원을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등 정치현안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호남을 방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렇지 않아도 친 손 대표 측 인사들의 지도부 경선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손 대표의 행보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7분 4.4초...숨 참기 신기록
데이비드 블레인이란 미술사가 지난달 30일 시카고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 실험 중계 중 지구 모양의 용기에 들어가 17분 4.4초의 숨 참기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모습.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이 부문의 전(前) 세계기록은 스위스의 페터 클라트가 지난 2월 10일 세운 16분 32초였다. /연합뉴스

내달 4일 영광군수·광주 남구 시의원 보선 민주경선 여론조사 양기로

이달 중순 공천 마무리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영광군수와 광주시의원(남구), 광양시의원 보궐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 선정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4·9총선처럼 이번 보궐선거 역시 광주·전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다, 영광과 광양에선 각각 5명과 4명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밭갈이에 나서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후보 선정방식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2일 열리는 '6·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홍수 사무총장) 회의에서 기본 골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재·보궐선거는 4·9총선에 비해 관심도와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세우는 모습.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이 부문의 전(前) 세계기록은 스위스의 페터 클라트가 지난 2월 10일 세운 16분 32초였다. /연합뉴스

장대가 적용될 것"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지역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 후보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4·9총선에서 '초 점진 지역'에 적용됐던 여론조사 경선방식은 당시 문제됐던 각종 부작용을 감안, 이번 보궐선거에선 도입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후보 추가접수를 마감한 상태"라며 "공식 선거일정을 감안, 이달 중순께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원 보궐선거에는 지난 1일 현재 민주당 소속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영광군수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5명, 무소속 5명 등 모두 10명 그리고 광양시의원 보궐선거엔 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재·보궐 선거 출마자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홍행기자 redplane@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새 국면

친박인사 "한나라 대선후보 경선前 美서 접촉" 逆기획입국설 대두...민주 "한나라 조작 증거"

친박 인사가 지난 대선 전 미국에서 김경준씨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나라당의 역기획입국설이 제기되는 등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유모씨는 지난달 30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다섯 달 앞둔 지난해 3월 미국 LA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씨를 미국 변호사인 심모씨와 함께 면회했다"며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으로서 김경준씨를 만난 것은 내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미국행에 대해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양측 진영(이명

박, 박근혜 후보)에 모두 TF팀이 있었다. 나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이명박 후보를 검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 김경준을 찾아 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선 당시 김경준씨를 접촉했던 정치권 인사가 친박근혜 측 인물로 확인되면서 친박 측은 물론 구여권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했던 친이 측도 다소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친박계 한 핵심 인사는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관계를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이 난무했다"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접촉 사실을 간접 확인했다.

이 측근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를 기획입국설과 연관시키지 말라"며 "친박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이 측 한 중진 의원은 '한국에서 온 사람 중 김경준을 만난 것은 자신이 유일할 것'이라는 유모씨의 주장과 관련해 "다른 인사들이 더 접촉했는지 여부를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라며 "혹시 구 여권과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기획입국 주장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역으로 한나라당에서 기획입국 시킨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신당 인사들이 기획입국을 시켰다는 증거를 내놓았다더니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기획입국설을 조작해서 파뜨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아프간에 경찰 파견키로 정부, 상반기중 수십명 규모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안정을 위해 현지 경찰을 훈련시킬 경찰요원을 파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규모는 수십 명으로, 현지의 미국 경찰훈련대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아프간에 경찰 훈련요원을 파견시켜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현재 내부 협의를 진행중인데 파견을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고 있다"면서 "현지 실사와 미국 및 아프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파견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지에서 활동중인 미국 경찰훈련대에 우리 경찰을 합

류시키는 방식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훈련대를 운영하려면 이들을 경호할 병력을 함께 파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파병 논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경찰의 해외작전 경험의 사실상 전무한데 대규모 경찰을 해외에 보낼 경우 이를 메울 자원이 마땅치 않다"면서 "파견 규모가 수십 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아프간에 의료봉사 및 직업훈련을 담당할 민간인 30여명으로 구성된 재건팀(PRT)을 6월까지 파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양정례 모친 구속영장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 정도에 걸쳐 17억원을 대여금과 특별당비 등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측에서 당비로 지원했다거나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이 돈이 사실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넨지만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공방'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성윤씨에게 500만원씩을 후원금 등으로 건넨 부분은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대가성 여부를 좀 더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제명

창조한국당은 1일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를 사실상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오전 열린 윤리위에서 4명의 위원 중 3명이 제명 의견을, 1명이 당원권 자결정지 의견을 제시해 윤리위 차원의 제명을 결정했

다고 김석수 대변인이 전했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2일 오후 열리는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당선자는 당적을 잃게 되지만 당선자 신분은 유지되며, 창조한국당의 18대 국회 의석수는 현재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재혼반 11년!

11년 동안의 혼란과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 전문가 상담 (11개월)

2. 심리치유 프로그램 (11개월)

3. 재혼준비 과정 (11개월)

4. 재혼 성공 사례 연구 (11개월)

5. 재혼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11개월)

6. 재혼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11개월)

7. 재혼 성공을 위한 사회적응 (11개월)

8. 재혼 성공을 위한 자녀양육 (11개월)

9. 재혼 성공을 위한 재정관리 (11개월)

10. 재혼 성공을 위한 법률상담 (11개월)

11. 재혼 성공을 위한 건강관리 (11개월)

12. 재혼 성공을 위한 인생철학 (11개월)

13. 재혼 성공을 위한 사회적응 (11개월)

14. 재혼 성공을 위한 자녀양육 (11개월)

15. 재혼 성공을 위한 재정관리 (11개월)

16. 재혼 성공을 위한 법률상담 (11개월)

17. 재혼 성공을 위한 건강관리 (11개월)

18. 재혼 성공을 위한 인생철학 (11개월)

문의처: 02-527-3388

주최: 재혼반 11년! 재혼반 11년! 재혼반 11년!

당양산과

당양산과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나누세요.

1. 당양산과 (11개월)

2. 당양산과 (11개월)

3. 당양산과 (11개월)

4. 당양산과 (11개월)

5. 당양산과 (11개월)

6. 당양산과 (11개월)

7. 당양산과 (11개월)

8. 당양산과 (11개월)

9. 당양산과 (11개월)

10. 당양산과 (11개월)

11. 당양산과 (11개월)

12. 당양산과 (11개월)

13. 당양산과 (11개월)

14. 당양산과 (11개월)

15. 당양산과 (11개월)

16. 당양산과 (11개월)

17. 당양산과 (11개월)

18. 당양산과 (11개월)

문의처: 021-383-8283

주최: 당양산과